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열)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3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60점, 950±150자)　　문제 2 (40점, 650±10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열)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겪는 '외로움'을 이상적인 '고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950±150자, 60점)

〈보기〉

외로움과 고독은 모두 혼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심리학에서 외로움은 사람이 바라는 관계와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느낄 때 생기는 주관적인 고통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외로움은 군중 속에서도 찾아오며, 스스로 고르지 않은 채 겪게 되는 결핍의 상태에 가깝다. 이와 달리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이다.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혼자 있음의 고통을 표현하려고 '외로움'이라는 말이, 혼자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고독'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보았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 역시 고독을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 곧 내가 나와 대화하며 생각하는 상태로 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마저 잃어버린 외로움과 구별하였다. 결국 고독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이는 타인과 더 깊이 만나는 바탕이 된다.

[가] 저녁 아홉 시의 지하철 안, 마주 앉은 일곱 사람 가운데 여섯이 손바닥만 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메시지에 답하고 누군가는 짧은 영상을 쉼 없이 넘겼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은 오히려 잊어 가는 듯하다.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지금, 혼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혼자 있음 그 자체가 아니라, 혼자인 사람이 기댈 곳 없이 고립되는 데 있다. 영국이 2018년 외로움 문제를 맡는 장관직을 둔 것도 외로움을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동네 작은 도서관의 저녁 독서 모임에 들렀다. 참석자들은 한 시간 동안 각자 고른 책을 말없이 읽다가, 마지막 이십 분 동안만 인상 깊었던 대목을 한두 문장씩 나누고 헤어졌다. 누구도 서로의 사정을 캐묻지 않고,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권하지도 않는다. 모임이 끝나면 대부분은 짧은 인사만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자리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다. 혼자 산다는 한 참석자는 일주일 가운데 이 저녁을 가장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 까닭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나] 홍안서생으로 이런 단안을 내리는 것은 외람한 일이나 동무란 한낱 괴로운 존재요 우정이란 진정코 위태로운 잔에 떠 놓은 물이다. 이 말을 반대할 자 누구랴. 그러나 지기 하나 얻기 힘들다 하거늘 알뜰한 동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이 살을 베어 내는 아픔이다.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창을 넘어 나왔다든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든가 왜 나왔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두뇌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어지는 코스모스 앞에 그윽이 서서 닥터 빌링스의 동상 그림자처럼 슬퍼지면 그만이다. 나는 이 마음을 아무에게나 전가시킬 심보는 없다. 옷깃은 민감이어서 달빛에도 싸늘히 추워지고 가을 이슬이란 선득선득하여서 설운 사나이의 눈물인 것이다. 발걸음은 몸뚱이를 옮겨 못가에 세워 줄 때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 달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잖아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얄미운 달은 머리 위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꼿꼿한 나뭇가지를 골라 띠를 째서 줄을 매어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쏘다.

[다] 사람들은 내게 곧잘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 지내면 외롭겠군요. 비 오고 눈 오는 날, 특히 밤에는 사람들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겠지요.” 그런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도 우주 속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사람을 그 동료들로부터 떼어 놓아 외롭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 다리를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두 마음을 서로 훨씬 가깝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중략)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몸과 마음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라도 함께 있으면 이내 지치고 마음이 흩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한다. 나는 고독만큼 좋은 벗을 아직 만나 보지 못했다. 우리는 대개 방 안에 머물 때보다 사람들 사이로 나갔을 때 더 외롭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언제나 혼자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 동료들 사이에 놓인 거리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사교는 대개 너무 값싸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가치를 얻을 틈도 없이 너무 자주 만난다. 하루 세 번 식사 때마다 만나서는, 묵은 치즈 같은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또 한 번 맛보인다. 그리고 이 잦은 만남을 견딜 만하게 하고 드러내 놓고 싸우지 않으려고, 예의와 범절이라 부르는 규칙들에 합의해야 했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제시문 [나]를 근거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논하시오. (650±100자, 40점)

[가] 세계화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서로 다른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여러 지역의 음식과 음악, 영화 등을 손쉽게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섞이면서 새로운 혼합 문화가 생겨나, 장기적으로 문화의 폭이 오히려 넓어진다고 본다.

반면 세계화는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온다는 견해도 있다.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소수 국가와 기업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이 약한 지역의 고유문화와 언어는 설 자리를 잃는다. 또한 사람들의 취향이 점점 비슷해지면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문화 다양성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나] 다음은 설명을 위해 꾸민 가상의 사례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서비스되는 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어느 비영어권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30여 개 언어의 자막과 더빙을 달고 공개되었다. 이 드라마는 공개 한 달 만에 수십 개 나라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올랐고, 그 나라의 음식과 언어를 배우려는 외국 시청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플랫폼은 이 성공을 계기로 그 나라 제작사들과 새 작품 계약을 잇달아 맺었다.

같은 시기, 같은 나라의 한 지방 방송사는 지역 방언으로 만든 소규모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이 플랫폼에 올렸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첫 화면의 추천 목록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고, 시청자 대부분은 제목을 직접 검색해 찾아온 그 지역 주민이었다. 플랫폼은 추천 목록이 이용자 자신의 시청 기록과, 취향이 비슷한 다른 이용자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과 새로 계약한 제작사들은 다음 작품을 기획하면서 앞선 흥행작과 비슷한 회차 길이와 전개 방식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끝〉